

국내경기는 4년 1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악화

~ 개인소비 정체 및 엔저(円低)에 따른 코스트 부담 고조가 하락세 요인으로 ~

(조사대상 2만 7,159사, 유효회답 1만 1,068사, 회답율 40.8%,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6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43.3으로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엔저(円低)에 따른 코스트 부담 고조 및 개인소비 침체로 인하여 개선되지 않았다. 향후의 경기는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및 계속된 인력부족 등 마이너스 요인도 많아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업계별로는 『서비스』 및 『소매』 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에서 악화되었다. 개인소비 정체가 계속됨과 함께 엔저(円低)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인건비 증가 등이 부담이 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악화, 4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관광지의 체감경기는 인바운드 소비가 호조인 한편 인근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 확보 상황에 따라 명암이 갈랐다.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이 3개월 만에 개선된 한편 「중소기업」은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개인소비DI는 42.8(전월대비 0.5포인트 감소)로 2개월 연속 침체하였다. 기업으로부터는 소비자의 절약 지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다수 들려왔다.

< 2024년 6월의 동향 : 3개월 연속 후퇴 >

2024년 6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43.3으로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엔저(円低)에 따른 코스트 부담 고조 및 개인소비 침체로 인하여 개선되지 않았다. 3개월 연속 악화는 2020년 5월 이래 4년 1개월 만이다.

6월은 숙박업 및 오락서비스업 등 개인 대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소비DI가 크게 침체하였다. 엔저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등 코스트 부담 증가가 체감경기를 하락시킨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인건비 증가 및 2024년 문제로의 대응, 불충분한 가격전가 등도 악재였다. 근린 지역으로부터의 여행객 확보가 각 지역의 관광산업의 명암을 갈랐다. 한편 인바운드 소비가 호조였으며 DX 관련 투자 및 민간공사의 발주증가, 에어컨 등 계절상품 판매, 활발한 이벤트 개최 등은 호재였다.

< 향후의 전망 : 보합경향으로 추이 >

향후의 국내경기는 임금인상 및 보너스 증가에 따른 실질임금 동향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엔저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바운드 소비 확대 및 자동차 만회생산,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회복 등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하방요인으로 인건비 및 물류 코스트 증가, 사업단가의 상승 속도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가격 전가나 가계의 절약지향 고조 등이 우려된다. 향후의 경기는 일본은행의 추가금리인상 및 계속된 인력부족 등 마이너스 요인도 많아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별 : 10개 업계 중 6개 업계에서 악화, 높은 제경비 및 구매의욕 저하가 영향

·『서비스』 및 『소매』 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에서 악화되었다. 계속된 개인소비와 더불어 엔저(円低)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인건비 증가 등이 부담이 되었다. 한편 인바운드 수요 및 반도체, 호텔 관련 설비투자 등은 플러스 요인이었다.

·『서비스』 (49.2)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호조인 인바운드가 지탱해왔으나 국내여행객의 침체로 「료칸·호텔」(동 3.0포인트 감소)은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락서비스」(동 1.6포인트 감소)도 3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외식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음식점」(동 1.3포인트 감소)은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광고관련」(동 2.5포인트 감소)도 자재 급등 및 종이 상품 감소 등으로 2개월 연속 침체하였다. 한편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의료·복지·보건위생」(동 0.8포인트 증가)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소매』 (40.3) …동 0.4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음식료품소매」(동 0.6포인트 감소)는 절약지향으로 내점빈도 및 구매접수 감소가 영향을 미쳐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새 상품의 구매 보류와 같은 목소리가 있는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동 3.9포인트 감소)는 크게 하락하였다. 주택수요의 상황이 좋지않아 「가구류소매」(동 1.5포인트 감소)는 2개월 연속 침체하였다. 한편 중고차 시세가 급등하였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자동차·동부품소매」(동 1.1포인트 증가)는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기온상승으로 계절수요가 높아져 「가전·정보기기소매」(동 2.4포인트 증가)는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농·임·수산』 (41.9) …동 1.8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생산량이 회복하였으나 소비가 돌아오지 않았다. 사료비가 급등하고 있다」(양계)와 같은 목소리나, 「구매로 연결되지 않고 구매보류가 눈에 띈다」(시설야채작농)등 소비 침체 및 사료, 농업자재의 높은 가격이 악재가 되었다. 게다가 주택착공호수의 침체로 인한 목재수요 감소도 하락 요인이 되었다. 한편 생산 가격의 고수준 추이 및 계속된 돼지고기 가격 급등과 같이 가격 상승이 매출 증가로 이어져 호재로 받아들이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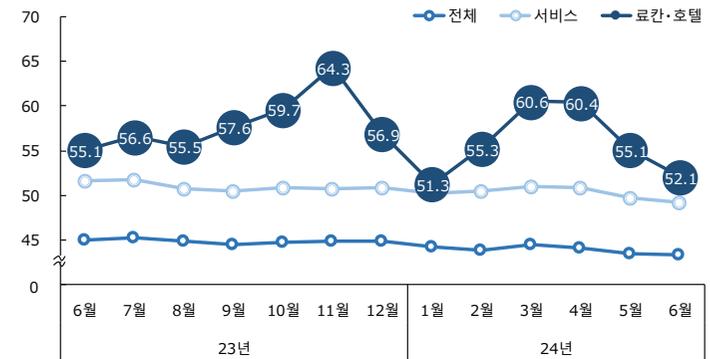
·『제조』 (39.4) …동 0.2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동 4.6포인트 증가)는 의료용기계기구를 중심으로 3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자동차 업계의 부정문제 영향은 남아있으나 해외수주 및 생산이 안정되어 가는 제조업체도 있어 「수송용기계·기구제조」(동 1.1포인트 증가)는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민간 설비투자의욕이 높다 등의 목소리가 들리는 「전기기계제조」(동 1.5포인트 증가)도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한편 구매의욕 저하가 나타나는 한편 원재료 및 광열비 등의 고공행진이 영향을 미친 「음식료품·사료제조」(동 0.2포인트 감소)는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업계별 경기DI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농·임·수산	46.7	42.5	43.0	42.1	43.0	40.1	40.5	40.3	41.2	42.4	42.0	43.7	41.9	▲ 1.8
금융	48.1	47.4	48.8	46.8	47.3	48.0	47.0	47.7	47.7	49.2	48.8	48.0	47.6	▲ 0.4
건설	46.8	47.8	47.4	47.1	47.5	47.8	47.2	47.7	47.5	47.0	46.6	46.0	46.4	0.4
부동산	50.3	48.8	49.6	48.5	48.7	47.9	47.5	48.1	48.3	49.3	49.3	47.7	48.0	0.3
제조	41.3	41.5	41.2	40.8	41.1	41.6	41.5	40.4	39.8	40.2	39.7	39.2	39.4	0.2
도매	42.5	42.9	42.3	41.9	41.7	42.1	42.7	41.6	40.9	41.4	41.0	40.5	40.1	▲ 0.4
소매	42.0	41.9	41.8	41.4	41.9	41.2	41.5	40.8	40.6	41.4	41.7	40.7	40.3	▲ 0.4
운수·창고	42.2	43.5	43.3	42.8	44.1	43.8	44.5	43.5	41.9	43.1	43.1	43.3	43.4	0.1
서비스	51.6	51.7	50.8	50.4	50.8	50.8	50.9	50.2	50.4	51.0	50.9	49.7	49.2	▲ 0.5
기타	39.8	40.9	40.8	39.2	40.1	38.2	42.8	41.3	41.2	41.1	42.1	37.8	37.5	▲ 0.3
격차	10.3	10.2	9.6	9.6	9.7	10.7	10.4	9.9	10.6	10.8	11.2	10.5	9.8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격차는 10개 업계 「기타」를 제외함

주목업종의 경기DI 추이



주요 업종별 경기DI 랭킹

상위 10 업종	업종명	경기DI	하위 10 업종	업종명	경기DI
	정보서비스	54.1		출판·인쇄	32.8
료칸·호텔	52.1	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4.4		
전문서비스	50.5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	34.6		
리스·임대	49.0	지류·문구·서적도매	35.2		
인재파견·소개	48.5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6.3		
음식점	48.1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6.3		
부동산	48.0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도매	36.4		
금융	47.6	철강·비철·광업	36.4		
교육서비스	47.4	섬유·섬유제품·복식품제조	37.3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	46.5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37.5		

규모별 : 「중소기업」이 3개월 연속 악화, 숙박업 및 음식점에서 계속 좋지 않아

- 「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이 3개월 만에 개선된 한편 「중소기업」은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기온 상승으로 음료 및 에어컨 등이 견조했던 한편 소규모기업에서는 전세버스 이용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여행 보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에서 하락 요인이 되었다.
- 「대기업」(48.0)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기온상승 및 절전의식 고조로 음료 및 가전제품 판매가 호조인 『소매』가 2개월 만에 개선된 한편 『부동산』은 맨션의 판매전시회 방문객수의 감소 등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중소기업」(42.5) …동 0.1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서비스』는 여행보류 등도 있어 「료칸·호텔」이 3개월 연속, 「음식점」이 2개월 연속 크게 침체하였다. 식품가격의 인상으로 포장자재 수요가 침체한 「출판·인쇄」도 악화되었다.
- 「소규모기업」(41.6) …동 0.4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전세버스이용 및 공시운임이 상승한 『운수·창고』가 개선된 한편 『소매』는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10개 업계 중 개선이 5개 업계, 악화가 4개 업계로 나타나 체감경기는 업계간에서 이분화되었다.

규모별 경기DI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대기업	47.7	48.6	48.0	47.8	47.9	48.4	48.1	47.9	47.7	48.0	47.9	47.9	48.0	0.1
중소기업	44.5	44.6	44.3	43.8	44.1	44.2	44.3	43.6	43.2	43.8	43.4	42.6	42.5	▲ 0.1
(그중 소규모기업)	43.6	43.4	43.5	43.0	43.4	43.1	43.3	42.6	42.4	42.9	42.3	41.2	41.6	0.4
격차 (대기업 - 중소기업)	3.2	4.0	3.7	4.0	3.8	4.2	3.8	4.3	4.5	4.2	4.5	5.3	5.5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경기DI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3.9	45.6	44.8	43.6	43.7	43.3	43.3	41.6	41.8	42.4	42.8	42.4	42.8	0.4
토호쿠	41.7	42.1	41.8	41.5	41.4	41.3	40.3	40.2	38.8	39.3	39.2	38.6	39.2	0.6
키타칸토	42.8	43.1	43.1	42.9	43.0	42.6	43.0	40.9	41.7	42.0	41.4	40.9	40.7	▲ 0.2
미나미칸토	47.2	47.4	46.6	46.4	46.3	46.7	46.6	46.5	46.6	47.2	46.6	45.8	45.6	▲ 0.2
호쿠리쿠	43.7	43.6	43.1	42.5	42.1	42.3	42.5	40.0	39.8	41.4	42.4	42.3	40.7	▲ 1.6
토카이	43.8	44.4	44.4	43.6	44.4	45.1	44.8	44.4	43.1	43.7	43.2	43.0	43.3	0.3
킨키	43.9	43.8	43.6	43.2	43.7	44.1	44.6	43.6	43.2	43.6	43.7	42.6	42.5	▲ 0.1
츄고쿠	44.7	45.3	44.3	44.1	44.9	44.2	43.9	44.3	43.2	43.1	42.6	42.8	42.6	▲ 0.2
시코쿠	41.7	42.6	41.8	41.2	41.4	41.3	42.5	42.2	41.0	41.1	41.2	40.2	39.9	▲ 0.3
큐슈	48.2	48.0	48.3	47.7	48.6	48.7	49.0	48.3	48.1	48.5	47.6	46.4	46.5	0.1
격차	6.5	5.9	6.5	6.5	7.2	7.4	8.7	8.3	9.3	9.2	8.4	7.8	7.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악화, 인근 지역 여행객 확보가 명암을 갈라

- 『미나미칸토』 『호쿠리쿠』 등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악화, 『토호쿠』 등 4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는 26개 부현(府県)이 악화, 19개 도현(道県)이 개선되었다. 인바운드 소비는 호조인 한편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여행객 확보가 각 지역의 명암을 갈랐다. 공사발주 증가는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 『미나미칸토』(45.6) …전월대비 0.2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지역 내 1개 도(都) 3개 현(県)중 3개 현이 악화, 「도쿄」가 보합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자금수요의 부족 및 보험·증권업계에서의 불상사 등으로 『금융』이 3개월 연속 침체하였다. 또한 『서비스』도 저조하였다.
- 『호쿠리쿠』(40.7) …동 1.6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지역 내 4개 현(県)이 2년 5개월 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노토반도 지진의 복구·부흥이 늦어져 『건설』은 다시 악화로 전환되었다. 국내여행이 좀처럼 늘지 않은 가운데 인바운드 수요는 호조였다.
- 『토호쿠』(39.2) …동 0.6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지역 내 6개 현(県) 중 4개 현이 개선되어 「후쿠시마(福島)」와 「미야기(宮城)」는 3개월 만에 상향으로 전환하였다. 설비가동율이 개선되어 공사 발주도 늘기 시작한 한편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여행증가 등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지역별 경기DI(2024년 6월)

